



시계 전체에 젬스톤을 세팅하여 화려한 광채를 채운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데즐링 랑데부 문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후 시계 속에 달과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 표현하는 기술력을 활용하여 천체 현상을 재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측정은 우주의 순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에 있어 달과 별은 특별한 울림을 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탄생한 스위스 발레 드 주의 청명한 밤하늘과 함께 위치메이커와 예술 공예 장인들은 올해 다시 한번 천체를 주제로 새로운 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그랑 메종은 제 76 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를 맞이하여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인 문페이즈를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했습니다.

데즐링 랑데부 문

밤하늘을 밝히는 달은 낭만과 우아함의 상징이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의 근원과 계절의 순환을 알리고 예술가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천체이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데즐링 랑데부 문은 예거 르쿨트르의 상징적인 문페이즈 기능을 아름다운 형태로 담아내어 여성들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핑크 골드로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광채에 온기를 더하고 반짝이는 화이트 마더오브펠을 세팅하여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시계 전체에 젬스톤을 세팅한 데즐링 랑데부 문은 올해 1 월 국제고급시계 박람회(SIHH)에서 선보인 데즐링 랑데부 나잇 & 데이(화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와 데즐링 랑데부 문(화이트 골드)에 이어 공개되었으며, 6 월에 개최된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는 루비를 세팅한 데즐링 랑데부 레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즐링 랑데부 문 베젤은 시계 케이스 주변에 두 개의 동심원을 이루는 108 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에 젬스톤 36 개를 클로(또는 '그리프') 세팅하여 공기처럼 가볍지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원을 재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장인들이 1920 년대의 저명한 하이 주얼리 디자인인 모델 101 에 적용했던 클래식 주얼리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쟈스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세팅은 눈에 보이는 메탈을 최소화하며 모든 각도에서 빛이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는 놀라운 마법을 발휘합니다. 데즐링 랑데부에서 작은 골드 클로는 다이아몬드를 높이 떠받쳐 다이아몬드가 시계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위로 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겨 줍니다. 마지막으로 러그와 와인딩 크라운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케이스를 완성합니다.

화려한 풀 세팅 브레이슬릿은 주얼리 공예의 걸작과도 같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보석 세팅 장인은 베젤에 310 개의 다이아몬드(22.27 캐럿)를 세팅하여 마치 다이아몬드로 된 강물이 흐르듯 손목을 리본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유려한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달빛처럼 영롱한 화이트 마더오브펠 다이얼은 은은한 디테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리 폴리싱 처리된 골드 컬러 구형의 시간을 표시한 외부 링과 별도의 마더오브펠 ‘타일’에 핑크 골드 애플리케 숫자를 장식한 메인 아워 링을 적용했습니다. 두 가지 링 모두 47 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내부 동심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는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타임피스의 6시 방향 오프닝을 통해 별이 수 놓인 어벤츄린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신 마더오브펠 달이 떠올라 한 달 동안 변하는 달의 주기에 따라 마더오브펠 조각 구름 뒤로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공예 기술과 수준 높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데즐링 랑데부 문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을 통해 38 시간의 파워 리저브 버전으로 탄생한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925/A1 로 구동됩니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블루 스크류, 원형 그레인, 꼬뜨 드 제네브(Côte de Genève) 장식의 핑크 골드 시그니처 와인딩 로터와 같은 섬세한 장식과 클래식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데즐링 랑데부 문은 아름다운 밤하늘에 바치는 그랑 메종의 헌사입니다.



상세 정보:

크기: 36mm

칼리버: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25A/1

기능: 시간/분, 문페이즈

파워 리저브: 38 시간

케이스: 핑크 골드

다이얼: 마더오브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478 개의 다이아몬드, 24.7 캐럿

방수: 5 바(bar)

케이스백: 오픈

제품 번호: Q3522370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틀모스와 같이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컬렉션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